

## 17) 홍유돌근골막 피판을 이용한 후두 재건

전 남 의 대

\* 조 재식 안 병현 김 선태 이 종원

후두암의 수직절제 수술후의 후두 재건 목적은 기관절개를 통하지 않고 후두를 통한 호흡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연하시 기도흡인을 피하기 위한 sphincter 능력의 보존, 그리고 발성이 가능하도록 상대진동 mechanism을 재건하는데 있다. 오늘날 수많은 후두학자들에 의해서 고안 개발된 다양한 재건 방법이 있다.

연자는 광범위한 후두절제에 따른 큰 결손을 메우기 위해 bulky하면서도 점막 상피의 재생이 용이한 재건 피판으로 홍유돌근골막 피판을 이용하여 후두 결손부를 재건하여 보았다.

방법은 성견 3마리를 대상으로하여 thiopental sodium 정맥주사로 전신마취를 시행한후 실골에서부터 홍골상까지 경부 정중양의 피부를 절개하고 후두를 노출시켜 후두 수직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홍유돌근과 홍골에 부착된 골막을 박리하여 홍유돌근골막 피판을 제작한후 골막이 후두강 안쪽으로 되도록하여 골막연과 후두 점막을 봉합하였다. 그리고 3, 6, 9개월에 후두적출술을 시행하여 병리조직학적 및 수술후 경과를 관찰하였다.

3실험견 모두 기관절개술 없이 후두를 통한 호흡이 가능하였고 흡입성 폐렴이나 피하기중등의 합병증없이 창상이 치유되었으며 발성도 양호하였다. 이식된 골막위로 신생혈관의 출현과 함께 점막재생이 잘되어 있었다. 단지 봉합사 주위에 소량의 육아종이 관찰되었다.

조직학적으로는 섬유조직위로 편평상피가 재생되었으며 성문하부에서는 일부 섬모가 있는 호흡기 점막도 관찰되고 골막하부에 신생골 형성은 관찰할 수 없었다. 골막 피판은 그 유연성 때문에 결손부위의 점막연에 맞춰도 tension이 없고 공기 누출이 되지 않게 봉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점막이 재생할 수 있는 framework의 역할을 하는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홍유돌근 자체가 견실하고 골막에 혈류공급이 잘되어 창상치유에 좋을 뿐 아니라 큰 후두결손부의 재건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되었다.